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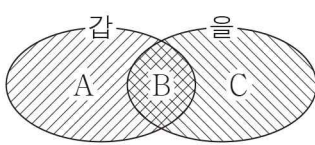
1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 등의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 생명,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갑: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정립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② 갑: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③ 을: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
- ④ 을: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
- ⑤ 갑, 을: 윤리학은 도덕 명제의 논리적 구조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

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p> <p>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원조의 대상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ㄱ. A: 빈곤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B: 자선의 차원을 넘어 의무의 차원에서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
 ㄷ. B: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국의 복지 수준 향상에 있다.
 ㄹ. C: 공리의 원리에 따라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음악이란 즐기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군자(君子)는 올바른 도(道)를 터득함을 즐기고, 소인(小人)은 그의 욕망을 예(禮)에 맞게 채우게 됨을 즐깁니다. 음악으로 올바른 도를 터득하여 욕망을 통제하면 백성들은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음악이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은 성왕(聖王)의 일과 맞지 않으며, 백성의 이로운[利]과도 맞지 않으므로 음악을 즐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천하의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자 하여도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

ㄱ. 갑: 음악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갑: 음악은 백성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ㄷ. 을: 음악은 백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다.
 ㄹ. 갑, 을: 통치자는 음악이 백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인어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을: 진정한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등의 직접적 폭력은 물론,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도 제거해야 한다.

- ① 갑: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
- ② 갑: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단일한 세계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 ③ 을: 범죄와 전쟁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문화적 폭력도 없어진다.
- ④ 을: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억압 및 착취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 ⑤ 갑, 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폭력은 정당하다.

5.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道)는 자연(自然)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에 몸을 두고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스스로 자라나는 법이며 간섭할 필요가 없다.
 (나)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인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루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한다.

- ① (가): 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 ② (가): 성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충서(忠恕)를 실천해야 한다.
- ④ (나): 무욕(無欲)과 무지(無知)의 삶을 통해 인을 실현해야 한다.
- ⑤ (가), (나): 성인은 도덕과 예의(禮義)로써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민자들에게 주류 집단의 문화를 채택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주변인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차이를 수용하여,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현재 소속된 국가의 정치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소속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보기 >

- ㄱ. 이민자들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인정해야 한다.
- ㄴ. 이질적인 문화를 주류 집단의 문화에 동화시켜야 한다.
- ㄷ. 사회 통합의 과정에서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
- ㄹ. 사회 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 시민 간 결속이 강화될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더라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정치적으로도 양심적이고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신중한 신념을 표현하는 비공개적인 행위이다.
- ③ 시민 불복종은 그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의 거부까지 포함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 ⑤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8.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삶은 잠시 빌려 사는 것으로 먼지나 티끌 같은 것이고, 죽음과 삶의 이치는 낮과 밤의 변화와 같다. 만물에는 삶도 있고 죽음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氣)의 모임이고, 죽음이란 기의 흩어짐이다.
- (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의 삶에서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열반(涅槃)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회(輪廻)한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苦]이므로 이것에서 벗어나는 열반이 중요하다.

- ① (가): 삶과 죽음을 기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가): 삶과 죽음은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차별되는 대상이 아니다.
- ③ (나): 윤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업(業)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 ④ (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본래 모습[自性]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가), (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9.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요즘 정보 탐색과 의견 공유를 위해 다양한 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지만 뉴 미디어 이용의 증가로 거짓 정보의 생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니 뉴 미디어 내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여 이용해야 한다. 물론 거짓 정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주체인 뉴 미디어 이용자들이 비판적 이해력을 지니지 않는다면 거짓 정보의 생산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너도 뉴 미디어 내 정보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 ① 뉴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거짓 정보의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 ② 뉴 미디어의 확산으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 ③ 뉴 미디어 내 거짓 정보는 타율적 제재를 통해서만 제거해야 한다.
- ④ 뉴 미디어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거짓 정보는 줄어들고 있다.
- ⑤ 뉴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한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니며 이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병: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최소한 몇몇 포유류를 포함한 이들은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p> |
| (나) | <p><범례> → : 비판의 방향 A~E : 비판의 내용</p> <p><예시> ①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 보기 >

- ㄱ. A: 종(種) 차이에 따라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
- ㄴ. E: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 안 됨을 간과한다.
- ㄷ. B, D: 인간이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님을 간과한다.
- ㄹ. C, E: 유정(有情)적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 경우 범죄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을: 형벌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범죄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끼친 손해에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다.

- ① 사형 집행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가?
- ②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보복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가?
- ③ 형벌과 범죄와의 비례 관계를 고려하여 형벌을 집행해야 하는가?
- ④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 안의 인간성을 가혹하게 다루는 형벌인가?
- ⑤ 형벌은 사적 보복이 아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1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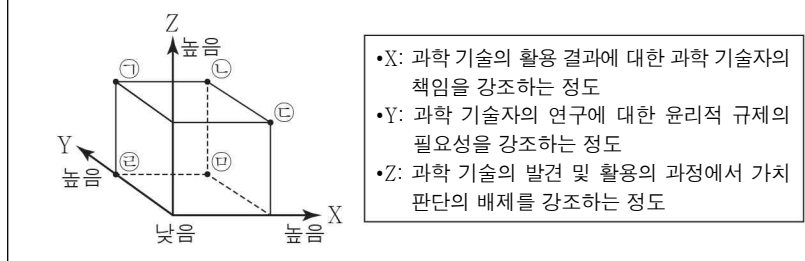
사람들은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입법부의 권력은 자연 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관점 | 학생 | 갑 | 을 | 병 | 정 | 무 |
|----------------------------------|----|---|---|---|---|---|
|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 | | ✓ | ✓ | | ✓ | |
|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 ✓ | | | ✓ | ✓ |
|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다. | | | ✓ | ✓ | | ✓ |
|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다. | | | | ✓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과학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과학 기술자의 연구는 윤리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 과학 기술의 발견 및 활용의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과학 기술자의 연구는 윤리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을: 정의의 원칙들이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되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을 쓴 당사자들 모두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병: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재화의 보유 상태는 정의롭다.

(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 보기 >

ㄱ. A: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ㄴ. B: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가?
 ㄷ. C: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된 것인가?
 ㄹ. D: 소유권은 오직 취득과 이전의 정의 원리에 의해 부여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신진대사작용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게 된다. 즉 인간은 먹는 행위를 통해 자연의 순환에 참여한다. 이러한 먹는 행위는 '먹는다'와 '식사한다'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먹는다'는 것은 단지 허기를 채우는 수단만을 전제하기에 '먹는다'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이다. 반면 '식사한다'는 것은 회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누구를 초대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사전적 준비가 전제되므로 '식사한다'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인간에게만 특유한 것이다. 따라서 '먹는다'는 것은 생물학적 성격을 갖는 행위이지만, '식사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행위이면서도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 보기 >

ㄱ.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ㄴ.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
 ㄷ. '먹는다'는 '식사한다'와 달리 정신적인 작용이 포함된 행위이다.
 ㄹ. '먹는다'와 '식사한다'에서 비롯된 즐거움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애국심이란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 충성과 비교해볼 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전망에서 보면 한갓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은 전체적인 인간 집단에서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집단은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해지며, 사회적 제재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 < 보기 —

ㄱ. 집단 내 개인 간의 문제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ㄴ.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이기주의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ㄷ. 애국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
 ㄹ. 개인은 집단에 비해 이기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업이 가지는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속임수나 부정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주주들을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은 자유 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다.

을: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선 사업, 환경 보호 활동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이럴 때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도 증진될 것이다.

- ① 갑: 기업은 주주들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② 갑: 기업의 자선 활동은 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책임에 포함된다.
 ③ 을: 기업의 환경 보호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무관하다.
 ④ 을: 기업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⑤ 갑, 을: 기업은 합법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지닐 수 없다. 인간의 다른 존재자들에 대한 의무는 한낱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 배치된다.

— <문제 상황> —

고등학생 A는 자신의 SNS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동물을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였다. A는 동물을 괴롭히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 ①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대우해야 함을 유념하세요.
 ② 동물 학대는 도덕성에 유익한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킴을 명심하세요.
 ③ 동물 학대는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임을 인식하세요.
 ④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임을 깨달으세요.
 ⑤ 동물은 도덕적 행위 주체로서 배려받아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를 지니며, 성(性)과 관련된 부분에도 이러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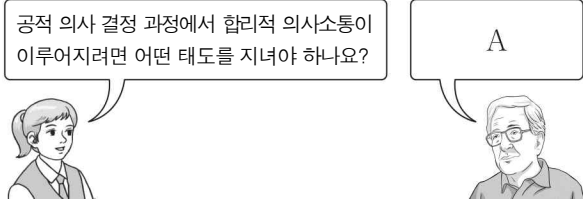
을: 동의합니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행위는 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올바른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갑: 아닙니다.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을: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성을 도구화하는 것은 성의 인격적 가치를 왜곡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올바른 성의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성의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인가?
 ② 올바른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③ 성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가?
 ④ 성적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⑤ 인간은 자신의 성과 관련된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2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현대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시민의 의사가 공적 영역의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데 있다.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공적 영역의 결정에 시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상적 담화 상황이 실현되어야 한다. |
| (나)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width: 150px;">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나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width: 80px; text-align: center;">A</div> </div>  |

— < 보기 —

ㄱ.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ㄴ. 어떠한 개인적 욕구나 희망 사항도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ㄷ.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ㄹ. 상대방의 주장에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